

한국 채란업의 나아갈 길



김영환

한국양계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FTA 발효가 되면 국내의 소규모 농가 보호시대는 가고 국제농업경쟁의 시대로 다가선 느낌이 들것이다. 한국양계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양계가들에게는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양계가도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건물, 시설,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 좋은 계란품질- 계란을 세척하고, 파란이 완전 제거된 계란 상품을 만든다. ACD(파란검색기계)에 70주령된 닭의 계란을 통과시켜보면 20%이상의 파란이 나오는 경우를 본다.

- 좋은 단열계사- 계사단열이 좋아야 우선 계란품질도 우수하

고 질병예방, 사료 절감이 가능하다. 천정에 R수치 23이상의 단열을 한다.

- 시설자동화- 환기, 사내온도조절, 급수, 급이, 집란, 계분제거가 자동화되어야 하며, 파란감소 케이지시설 또한 중요하다.

- 사료가격- 작년 봄 미국의 kg당 산란사료가격은 150~180원 이었다. 우리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사료절감 사양관리, 좋은 계사와 시설, 위생관리로 사료비를 줄여야 한다. 마이코톡신이 오염되지 않은 신선 사료선택이 또한 중요하다.

- 초생추 품질- 난계대 전염병, 면역결핍 질병에 오염되지 않은 초생추, MD백신접종을 강화한 초생추 구입이 생산성을 높인다.

- 조류인플루엔자(AI)- 한번 시가 국내에 발생하면 피해가 너무 크다. 양계업 자체의 존립이 걱정될 정도이므로, 모든 노력을 다해 방어해야한다. 유행기간, 모든 가금은 옥내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농장입구에 위생실(혹은 컨테이너)을 짓고 외부용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 가야하며, 손 세척, 의복?모

자가 교체된 후 계사에 들어가야 한다. 계분은 멸균 발효, 생석회 처리된 후 반출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생산자 표기가 된 더욱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얼굴 있는 계란**-생산자 번호가 찍혀있는 얼굴 있는 계란을 유통하도록 우리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에는 국가명, 생산방식, 농장번호와 계사번호가 붉은 잉크로 찍혀있다.
 - **국산계란 마크**-국산계란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 계란포장에 찍어, 소비자가 익숙하게 한다.
 - **계란 등급 표기**-계란포장에 무게 등급, 신선도 등급을 농가자신이 표기하게 의무화해야한다. 유럽은 정상계가 낳은 계란을 농가가 3일 이내에 GP할 경우, 기실 높이 6mm 이하일 경우 A등급 표기를 허용한다.
 - **유통기한**-생산일로부터 산정한 식탁란의 유통기한(일본은 상미기한) 규정을 제정한다.
 - **냉장유통**-20℃이하의 계란 유통은 신선도를 유지시키고 계란 속에 침투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한다. 농가에 냉장시설을 하여야 하고 20℃이하에서 운송, 소매 진열한다. 당국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 셋째, 계란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농림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살모넬라E가 오염된 계란과 특정 항생제등이 함유된 계란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살모넬라E 부재인증**-SE부재 계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면, 생산자가 좋은 계란을 생산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라이언(사자표) 마크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유통계란의 70%이상이 라이언마크 인증을 받고 판매된다. 인증이 없는 계란은 가격이 낮게 팔린다.
 - **기능란의 표기**-사이비 기능란을 제재하기 위하여 기능란은 그 성분함량을 포장에 표기하게 해야 한다.
 - **사양관리 인증**-유럽 여러나라에는 제각기 사양관리, 위생, 계란유통을 양계장과 계약하여 지도하는 기관들이 있어, 어떤 계란 GP회사는 인증기관과 계약된 농장의 계란은 더욱 높은 가격에 구입한다.
- 넷째, 양계가들도 유통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계란내의 살모넬라, 항생제 부재 법규가 발표된 이후 대형마트들은 중간 수집상으로부터 계란구매를 꺼리고, 대형농장과 직거래하기를 원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계란 GP산업에 주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어렵지만 양계가들도 합심하여 GP센터를 설립, 유통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친환경 양계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산업에 대한 공해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시설을 개선하면 냄새나지 않는 계분처리, 폐수 없는 농장, 소음·분진 없는 농장을 만들 수 있다. 과감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FTA에 따른 농업지원,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계속 양계를 하려는 농민에게는 건물·시설개선, 시설기계화, 계분처리시설, 유통참여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생산농장의 자동화, 현대화, 규모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계란제품 개발, GP센터설립, 원가 절감, 식품안전성향상, 국제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앞으로 계란은 포장되어서만 판매되어지고 살모넬라, 항생제 오염란의 판매는 금지된다. 계란등급표시, 생산자표시도 필수규정이 될 것이다. **양계**